

일본, 91년 촉매수입 큰폭 증가

1만9400톤 536억엔으로 각각 273% · 304% 늘어

일본의 촉매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.

일본은 91년 수량 기준 1만6000톤(2.4% 감소), 금액기준 265억엔(3.3% 증가)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> 91년 일본의 촉매 수출입 실적

(단위:톤, 100만엔, %)

구 분	1990	1991	91/90
니켈 또는 그 화합물	312(927)	1,158(2,489)	371.2(268.5)
백금촉매	187(1,530)	319(2,471)	170.6(161.5)
자동차 배기가스정화용	1,080(12,020)	2,887(40,766)	367.3(339.2)
귀금속 또는 그 화합물	37(299)	108(460)	291.9(153.8)
철 촉매	198(146)	216(164)	109.1(112.3)
실리카 · 알루미늄 촉매	243(95)	1,085(308)	446.5(324.2)
기타 촉매	1,498(1,201)	4,863(3,333)	324.6(277.5)
철 촉매 및 백금 촉매	131(156)	136(127)	103.8(81.4)
실리카 · 알루미늄	1,381(261)	62(62)	4.5(23.8)
기타 촉매	1,987(941)	8,426(3,354)	424.1(356.4)
반응개시제 및 반응촉진제	36(42)	143(124)	397.2(295.2)
수입(촉매) 합계	7,090(17,618)	19,403(53,659)	273.7(304.6)
니켈 또는 그 화합물	2,006(1,737)	605(769)	30.2(44.3)
귀금속 또는 그 화합물	543(4,022)	307(2,901)	56.5(72.1)
기타 촉매	6,159(9,032)	5,206(9,052)	84.5(100.2)
반응개시제 및 반응촉진제	7,787(10,892)	9,983(13,823)	128.2(126.9)
수출(촉매) 합계	16,495(25,683)	16,099(26,543)	97.6(103.3)
촉매담체(자기제)	210(517)	31(108)	14.8(20.9)
촉매담체(자기이외의 도자제)	273(323)	518(497)	189.7(153.9)
수입(담체) 합계	483(840)	550(605)	113.9(72.0)

주) 괄호안은 금액 및 그 증가율

수입은 탈황 · FCC · 자동차용 등 각 분야에서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, 1만9400톤(173% 증가), 536억엔(204% 증가)으로 대폭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수입을 포함한 일본의 전체 촉매시장은 90년대비 33.5% 증가한 1755억엔에 달했다.

품목별로 보면, 수입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증가가 뚜렷해 2800톤(167.3% 증가), 407억엔(339% 증가)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는데, 일본의 대미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미국제 부품을 수입 확대,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또 중질유탈황용 · FCC촉매도 증가했는데, 특히 탈황용을 비롯한 base촉매는 1100톤(271% 증가) 24억엔(168% 증가)으로 큰 신장세를 보였다. FCC촉매를 포함한 무담체(擔體) 촉매도 8400톤(324% 증가), 33억엔(256% 증가)으로 급성장했다.

<화학저널 1992/5/1>